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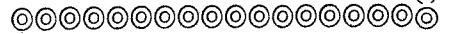
제 1 회

아시아 범기독교 (汎基督教)

의사회의 (醫師會議) 참가보고

이 중 훈

(가톨릭의대 교수)



이 글은 1972년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1주일간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국가 발전에 있어서의 건강의 역할(The role of health in the development of nations)”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제 1차 아시아 범기독교회의(First Asian Ecumenical Conference)에 한국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참석하고 돌아온 본인이 이 회의의 성격과 의의(意義), 그리고 여기서 얻은 몇가지 결론을 소개하기 위하여 적은 것이다.

동부아시아 기독교회(East Asia Christian Conference)와 국제가톨릭 의사협회 아시아지역 집행위원회(Asian Regional Executive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atholic Medical Organization)가 공동주관한 이번회의의 목적은 첫째, 아시아 각국의 가톨릭 및 프로테스탄트의 두 의사단체에 속하여 활동하는 의사, 간호원 및 기타 의료요원들로 하여금 오늘날 교회와 교회가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직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에 관하여 진지한 토의와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이며, 둘째는 국민건강에 관한 문제와 인구증가 및 의료 또는 이에 수반되는 기타 의료사업의 증가와 이에 관련된 국가 정책상의 시급한 문제들을 연구, 토의하고, 셋째는 이번 회의를 통해서 각기 달리 활동하고 있는 가톨릭 의사 및 기타 의료요원 단체와 프로테스탄트 의사 및 기타 의료요원 단체들이 지방 또는 전국적인 규모의 협동, 나아가서는 몇 개국이 통합된 지역적 협동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해 보자는 데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아시아에서의 첫번째 범기독교 의사 및 기타 의료요원들의 모임은 양자가 모두 교회 의료사업 전개에 있어서 자신과 사랑의 실천이라는 그리스도의 침묵을 따르는 입장에서 이미 상호

간의 협동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라는 당위를 실현한 셈이며, 이와같은 모임을 통하여 교회일치 운동에 있어서도 우리 의료인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커다란 의의를 지닌 것이었다.

그래서 이번 모임은 모든 순서, 진행에 있어서 양쪽 단체의 공통점을 최대로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일관했으며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참석자들의 관심과 노력 또한 적지 않았음을 볼 수 있었다.

첫날인 12월 7일 18개국에서 모인 150여명의 각국 대표자 및 「유서버」들은 회의장소인 「콘티넨탈」호텔에서 등록을 마쳤으며 한국에서는 프로테스탄트측에서 이화제의 이명수 교수, 한양의대의 박중무 교수, 연세의대 김일순 조교수, 그리고 가톨릭측에서 가톨릭 중앙 의료원장 유수철 신부, 가톨릭의대 조규상 교수와 본인(이중훈 교수)이 참가했으며, 이틀후에는 인도에서 ILO추치 산업장 가족계획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오던 가톨릭의대 맹광호 전임강사가 「유서버」로 참가하므로써 도합 7명이 이번 모임에 참석하였다.

첫날의 개회식은 방콕 「크리스찬」대학의 구내 교회에서 저녁 4시에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는 이번 회의 집행위원회 회장인 태국의 Dr. Lert Srichandra씨가 그의 환영사를 통하여 “이번 회의의 목적이 무한하신 사랑으로 병든자를 고치셨으며 고통스럽고 의지할데 없는 영혼을 위로하고 구제하는데 있어서 말로만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신 예수그리스도를 본 받아 인류에 봉사하기 위한 우리들의 결심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또 이 모임은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지도자와 의사, 그리고 기타 의료요원들의 단체가 힘을 합쳐 병들어 고통받는 환자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보다 나은 방법을 연구 검토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도움을 줄수 있는 결론에 도달해야 하는의무마저 지니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내빈으로 초대된 태국 「탐마 사트」대학 총장이며 전 대법원장이었던 Sanya Dharmasakti교수는 그의 축사에서 개인의 건강은 생활의 기본이 되고 국가백년 대계의 근본이 되며 이런 의미에서 개인이나 사회가 의료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국가발전을 기약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 기독교인의 모임이 열리게 된 것은 종교를 초월한 의료의 참사명을 구현하는 큰 뜻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번 기회에 아시아에서의 공통적인 보건문제 해결에 큰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회의는 12월 13일까지 계속되었는데 모든 참가자들은 같은 호텔에 숙식하면서 11일에 있었던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별도 모임을 제외하고서는 전체 회의와 그룹회의 등 대부분의 모임을 같이 하므로써 상호친목을 도모하고 또 개인 접촉을 통한 각국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가질수 있었으며, 주일 날인 10일에는 단체 관광도 즐겨 첫번째 모임으로서의 가톨릭 및 프로테스탄트의 병원 관계자 회의였던 이번 모임은 꽤 큰 의의를 지녔던 것이 틀림없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4개의 기초연설 및 이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또 각자의 희망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각기 다른 제목하에 그룹토의를 계속한 끝에 얻은 결론을 12일 오후와 1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발표하여 이번 회의를 끝냈던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전체회의

연제 I;

1) 발전도상 국가에 있어서의 보건상태……Dr. Bunsorn Martin(태국)

2) 중진국에서의 보건상태……Dr. Noboru Iwamura (일본)

<주요내용>

이 연제는 16개국으로부터 제출된 각국의 보건 현황에 관한 자료를 통합 발표한 것으로 각국이 직면한 보건문제, 기존 의료사업



과 시설, 각국의 보건 의료사업에 있어서의 교회의 참여도와 그효과 그리고 교회 병원의 인력, 재력등 자원에 관한 현황소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고, 일본의 경우는 고도의 경제 성장에 비해서 뒤떨어진 정신면의 계문제와 의료 제도면의 결합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연제 II;

아시아에 있어서 다음 세대의 보건 및 의료—아시아 지역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독교회의 역할—Dr. Rajnikant Arole(인도)

<주요내용>

교회가 보건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하는 이유에 대한것과 장차 정부가 국민의료를 담당하게 되고 의원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경우에도 교회가 계속 보건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으며 앞으로 교회가 어떤 형태의 보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인가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교회 자선진료의 방향과 또 이들 사업이 전교활동에 미치는 역할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연제 III;

인구증가의 위협에 관한 「페널」토의……Dr. Visid Prachuabmoh(태국)

Mrs. Mei Yuan W Lin(자유중국)

Dr. Kyu-Sang Cho(한국)

<주요내용>

여기서는 주로 각국의 인구 증가현상을 어떻게 보

고 있는가 그리고 인구 증가에 대한 교회의 입장에
 컨테 아시아에 있어서 교회가 인구문제에 대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이며 인구증가를 낮추는데 있어서
 의료사업의 기여 그리고 인구증가에 대한 가치관의
 변경에 있어서 교육의 역할 및 인구문제에 관한 교리
 나 윤리상의 토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연제 IV;

보건과 교육.....Dr. W. O. Phoon(싱가폴)

<주요내용>

이 연제에서는 현재 아시아 각국의 의학 교육이 아
 시아의 건강문제를 얼마나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현
 황과 오늘날 아시아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의학 교
 육의 참개념은 고도의 기술을 가진 하나의 임상가를
 만드는데 있기 보다는 현재 아시아가 직면한 보건문
 제와 질병에 영향을 주는 갖가지 심리적, 사회적 그
 리고 인체 해부학적 특성에 민감한 관심을 갖도록 하
 고 자각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국민을 위
 한 의료실천에 있어서의 인력수급문제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 그룹토의

그룹 I; 보건과 발전, 그리고 인구문제

건강은 인간의 권리이며 진정한 의미의 건강이란
 육체적으로 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안녕한 상태여야 한다.

불건강은 기대되는 요인들(예컨대 적절한 주택, 음
 식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환경등)이
 결여되어 있거나, 불필요한 요인들인 전염병, 약물중
 독 그리고 밀집된 환경과 공해등 때문에 생겨나게 된
 다.

여기서 교회는 사회의 모든 조직과 체제에 앞서 건
 강한 개인과 사회 조성을 위한 노력에 시범이 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노력의 하나로서 교회는 의료혜
 택을 못 받는 가난한 농촌에 시범의료사업을 전개해
 야 할 것이다.

한편 인구문제에 관하여서는 생명 존중의 원칙하에
 부모는 어떤 법률이나 경제적 압력 그리고 공중의 어
 른 따위의 영향으로 일성수의 어린아이를 갖는 것을
 반대하며, 진정한 가정의 행복과 책임 있는 자녀양육
 을 가족계획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
 했다.

그러나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염려하고 이를 위한

노력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과 교육
 을 통한 가족계획과 일련의 가족계획 방법이 가져오
 는 부작용이나 불임에 관한 연구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가장 권장해야 할 인구조절 방
 법으로는 생활수준 향상과 결혼 연령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공유산은 인구조절 방법으로서 급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룹 II; 보건에 관한 교회의 역할

보건의료 가운데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와 이일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과 그 능력은 어느 정
 도 인지에 관해 토의 되었는데 우선 먼저 다루된 것
 이 의료시설이나 인력의 균형 많은 분배 예컨대 모든
 의료시설이 도시에 편중된 나머지 정작 의료비 지불능
 력조차 없는 가난한 농촌이 오히려 의료혜택을 받지 못
 하는 사실에 대하여, 토의 되었으며, 의지할 곳 없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그리스도
 의 참뜻을 실천해야 하는 교회가 관련된 교회병원이
 나 그리스도 신자인 의료요원들이 이 버려진 사람들
 을 위해 의료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
 연한 일이며, 앞으로는 외원의 방향도 이와 같은 농
 촌 지역사회 의료에만 국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
 강조했다.

따라서 교회는 모든 의료요원들로 하여금 이에 대
 한 사명감을 갖도록 촉구할 것이며 의료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데도 정부와 크게 협력할 것이고 농
 촌 의료요원 양성에 있어서 교회가 앞장서야 하며 특
 히 청소년의 교육과 계몽에 있어서 교회가 선구적 역
 활을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교회는 정부와의 관계를 제점토함으로써 보다
 더 적극적인 도움으로 이상의 여러가지 국가보건 문
 제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하며 기독교 의사나 의료요원
 들은 새로운 각오로 진정한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
 어떤 정치적, 사회적, 변화라도 솔선하여 감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룹 III; 보건과 교육

이제까지의 아시아지역 의학 교육은 한마디로 병원
 중심의 서양의학에 관한 지식전달에 지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진정한 사회의 의료구를 인식하지 못해 온 것
 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의학 교육과정과
 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회병원이나 교회가 운
 영하는 의과 대학은 솔선해서 포괄적인 지역 사회의

료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국가적인 노력의 선구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농촌에 의사가 부족한 나라에서는 단기간의 의학훈련으로 의사의 지도감독 밑에 의료사업을 해낼 수 있는 중국 내륙의 "barefoot doctor"나 소련의 "feldshar"같은 보조원의 확보도 고려해 볼만한 일이다.

각급학교는 보건교육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각 의료기관은 각종 수단을 동원한 보건교육에 힘쓸 것이며 교회병원이 이것은 출선 수범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교회병원은 부족한 요원과 재원으로 국민보건 사업을 가장 효과있게 전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심하고 치료 사업보다 교육과 계몽을 통한 예방사업에 더욱 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인 바 이 모든 사업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정신에 힘입어야 할 것이다.

그룹 IV; 자라나는 세대의 보건문제

자라나는 세대에 있어서의 보건문제는 대체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나타나는 불안과 회의에서 비롯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은 기성세대와의 의사교환이 단절되는 데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가치관단의 차이에서 오는 간격 때문에 빚어지는 것으로서 최고의 가치관을 자유에 기반을 두는 젊은 세대에 비해 이를 질서와 훈련에 두려는 기성세대와의 관념상의 차이는 젊은 세대로 하여금 부모에 저항하게 하고 학교 생활을 등한히 하게 하며 청년의 비행이나 성의 문란 그리고 약물 중독이라는 다분히 반사회적 증상을 보이게 하는 것이다.

몸이 함께 있지 않고 마음이 함께 있을 수 없다. 이와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교회는 이런 문제 해결에 가장 앞장서 왔으며, 이런 의미에서 국민 보건에 관한 교회의 역할 가운데 가장 국가의 기둥이 될 젊은 세대의 선도와 가족적 분위기 유지에 끼쳐온 교회의 공로와 또 그 사명은 크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학교는 「카운셀러」의 역할을 강화하여 이들의 문제를 병적증상화 시키지 않도록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며 교육에 있어서도 주제위주 보다는 개인위주의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고 적절한 오락시설이나 도서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교회가 이들을 좀더 포섭하고 각종 청소년 활동을 통해 이들의 고민과 불안해소에 힘쓸 것은 물론 장차

성직자가 될 신학생들에게는 이들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이들의 문제를 심사숙고 할 수 있는 소양을 키워 주어야 하며 젊은 세대의 모든 문제는 그들과 함께 해결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문제시 될 것이 뻔한 이 젊은 세대의 약물 중독에 관한 문제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사회가 좀더 이 문제를 사전에 관심을 두고 다룰 수 있게 계몽해야 할 것이며 교회는 출선하여 교육하고 또 중독자에 대한 재활 문제까지도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상은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주제와 구름토의에서 얻어진 결론이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프로테스탄트 이전 가톨릭이건 간에 가난하고 병든자를 애굽하셨던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본받아 공통적인 의료직에 종사하고 있는 한, 서로 힘을 합쳐 보다 효과적이고 보람 있는 보건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하자는 것에 의견을 모은 셈이며, 오늘날 아시아 각국이 당면하고 있는 보건문제를 대두시켜 이의 해결 모색에 서로의 지식을 아끼지 않았고 이 모든 노력에 있어서 교회와 그 의료기관은 단연 출선하여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자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12월 11일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각각 별개의 모임을 갖고, 각기 아시아 지역의 총회를 열고 몇가지 당면 문제에 관한 토의를 가졌었는데, 아시아 지역 가톨릭의사 단체총회로는 이것이 제 5회째로서 이날의 회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8시 30분까지 등록을 마친 뒤 오전회의에서는 국제가톨릭의사회(FIAMC)의 사무총장인 Dr. Gino Papola가 소개한 국제가톨릭의사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연설이 있었으며, 이어서 태국의 가톨릭의사회 회장인 Dr. Raphiphat Kasemsook로부터 FIAMC의 정관과 회측상의 문제점에 관한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주로 회비문제와 회원국가의 투표권에 관한 내용으로서 여러 의견 끝에 이것을 법제위원회에 넘겨 다음회기에 새로운 회측을 내 놓도록 했고 오전회의를 끝내면서 단체사진 촬영을 한뒤 점심에 들어갔다.

오후에는 FIAMC의 명예 회장인 비올린의 Mariano Alimurng교수의 주제 연설과 토의가 있었으며 제목은 "아시아에 있어서의 프로테스탄 의사 단체와의 접근"이었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장시간 토의가 있었는데 아시아 각국은 아직도 자기 나라 내에서의 가톨릭의사 단체 결성이나 활동에 미비한 곳이 많으므로 현단계에서 국제적인 조직은 시기상조라고 보았으며 프로테스

탄의 사단체와의 협동 및 통합조직 결성도 바람직한 일이지만 어떤 국가 조직이나 위원회의 구성등은 역시 같은 이유로 많은 나라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마지막으로 오후 4시부터 열린 제 5회 아시아 가톨릭의사회 총회에서는 아시아 가톨릭의사 단체의 결성, 정관 및 회칙인준, 집행위원국선정, 다음 총회지선정 등이 제안되었는데 총회는 아시아 가톨릭의사단체(Asian Federation of Catholic Medical Association)의 설립에 동의하고 배국가톨릭의사회가 제출한 동 정관과 회칙을 인준했으며 아시아 가톨릭의사회의 집행위원국 선정에서는 인도와 월남 비올빈, 한국 및 자유 중국이 결정되었고, 다음번 총회장소 선정 문제는 자진해서 희망하는 나라가 없어 미결사항으로 남겨놓고 이 날 회의를 끝맺었다.

끝으로 이번 방북회의를 마치고 느낀 개인적인 소

견을 말하자면 제 2회 바티칸공의회 이후 교회에서의 평신도사도적 활동의 중요성이 재인식 되었고, 또 교회일치를 위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오늘 사회복지와 국민의 보건 및 의료를 위한 범기독교적인 의료인의 모임은 우리에게 많은 의의와 반성의 기회를 주었다고 보겠다. 특히 과거의 잘못된 가톨릭신앙으로서 본인의 구명이라는 종교 개념은 평신도로 하여금 사회속에서의 교회활동을 볼수 없었고 가톨릭의 사회로서의 활동도 의료인 상호간의 신심과 친목을 목표로 하여 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늘날 교회와 교회병원과 우리 의료인들은 특히 현하 어려운 국내 및 국제정세하에서 많은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가톨릭의료인으로서 새로운 각성과 지혜와 실천이 요망되는 바이다.

◇ 1973년도 ◇

총계 「세미나」

1973년도 본 협회 춘계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갖기로 하였습니다.

다 음

일 시 : 1973년 5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장 소 : 서울 코리아나호텔 (중구 태평로 1가)

주 제 : “행복한 가족” 계획 사업

<주요연제>

- 가톨릭 가족계획사업의 의의와 그 내용맹광호 전임강사(가톨릭의대)
- 가톨릭적 가족계획과 자연피임법김승조 부교수(")

<특 감>

- 지역사회 의료의 방향이태준 교수(가톨릭의대)
- 의료법인에 대하여.....조영선 교수(")

1973년 4월

한국 가톨릭병원 협회장 유 수 철